



기독교대한감리회

청파교회

교회세운날 1908.5.1

선으로  
악을  
이기십시오

하나님께서로 나아가는 한적한 오솔길  
사랑과 나눔을 배우고 실천하는 곳  
청파교회는 함께 하는 공동체입니다

# 주 일 낮 예 배 순 서

【 성령강림 후 제10주 】

인도 1부 : 이범석 목사  
2부 : 이재훈 목사

전 주 ..... 반주자  
임재의 기원 ..... 오소서 평화의 임금 ..... 다 함께  
예배로의 부름 ..... 담임목사

- ▲ 경배의 찬송 ..... 23. 만 입이 내게 있으면 ..... 다 함께
- ▲ 공동기도 ..... 다 함께

자비로우신 하나님, 처서가 다가오자 뜨겁던 여름은 쉬를 준비하며 자신의 자리를 비우고 있습니다. 이렇게 한 계절은 다음 계절을 위해 자신을 내줄 준비를 합니다. 이를 보며 꽃 피울 때와 여물 때를 아는 만물의 겸손을 다시 한번 깨닫습니다. 우리도 이처럼 존재를 드러낼 때와 고요히 머물 때를 잘 분별하는 지혜를 갖고 싶습니다.

주님, 우리는 또한 잘 볼 수 있는 사람이 되고 싶습니다. 주님께서 이미 한결같은 사랑과 은총으로 우리에게 다가오시는데, 우리는 그것을 보지 못하고 헛된 기적만을 바라고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가 원하는 방식이 아니면 주님의 위로와 도움을 인정하려 들지 않습니다. 이토록 어두워진 우리의 눈을 밝혀 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 ▲ 참회의 침묵기도 ..... 다 함께
- ▲ 위로의 말씀 ..... 롬 8:11 ..... 인도자
- ▲ 교 독 문 ..... 70. 이사야 42장 ..... 다 함께
- ▲ 영 광 송 ..... 2. 찬양 성부 성자 성령 ..... 다 함께
- 2부 대표기도 ..... 하현철 장로
- 2부 응 답 송 ..... 찬양대
- 2부 찬 양 ..... 336. 환난과 핍박 중에도 ..... 다 함께
- ▲ 성경봉독 ..... 막 6:45-52 ..... 1부:인도자/2부:안종일 권사

“이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봉독자  
“하나님, 감사합니다” 다 함께

찬 양 ..... I. 내게로 오라 ..... 마중물찬양대  
II. 위대하신 여호와 ..... 청파찬양대

말 씬 ..... **물 위를 건다** ..... 김기석 목사  
거듭의기도 ..... 다 함께

**2부 특 송** ..... 새벽 날개2 ..... 김인호 권사

▲ 봉 헌 ..... 317. 내 주 예수 주신 은혜(1·5절) ..... 다 함께

▲ 봉헌기도 ..... 김기석 목사

공동체 소식 ..... 김기석 목사

▲ 평화의 인사 ..... 다 함께

▲ 보냄의 말씀 ..... 다 함께

인 도 자 : 교우 여러분, 이제 평안히 돌아가십시오. 복음의 말씀을 들었으니  
참 자유인답게 사십시오. 일상에 갇든 은총을 보기 위해서는 반드  
시 연습이 필요합니다. 우리가 기대하는 방식에 주님 뜻을 맞추기  
보다 주님의 방식에 우리의 시선을 고정하십시오. 가장 좋은 것을  
가장 좋은 시기마다 주시는 주님을 더욱 신뢰하십시오.

다 함 계 : 아멘. 우리는 자주 주님의 도움을 외면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원  
하는 방식이 아니면 삶에 갇든 은총을 인정하려 들지 않았했습니다.  
그러나 주님, 이제는 믿습니다. 주님께서서는 새로운 날을 창조하기  
위해 우리를 필요로하신다는 사실과 그 초대 방식은 낫설 수 있  
음을 말입니다. 주님, 새로운 초대에 용기 있는 선택을 하게 도와  
주십시오. 아멘.

▲ 찬 양 ..... 635. 주의 기도 ..... 다 함께

▲ 축 복 ..... 김기석 목사

주일 오후 집회

수요일 집회

선교회

낮집회 / 설교 : 김기석 목사

## 성령과 기도

선물을 받으라는 초청이야말로 복음서의 도전이다. 그것은 우리가 무엇으로도 절대 갚을 수 없는 선물이다. 다름 아닌 하나님의 생명의 호흡, 즉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에게 부여하신 성령이 바로 그 선물인 까닭이다. 이 생명의 호흡이 우리를 두려움에서 벗어나게 하고 새로운 삶의 공간을 열어준다. 기도의 삶을 사는 이들은 언제나 하나님의 호흡을 받아들여 자신의 삶을 새롭게 넓혀갈 준비가 되어 있다. 반면 기도하지 않는 이들은 천식에 걸린 아이들 같다. 늘 숨이 차 온 세상이 좁게 오그라든다. 그들은 구석에 기어들어 숨을 헐떡이며 심한 고통에 시달린다. 그러나 기도하는 이들은 자신을 하나님께 열어드려 다시 한번 마음껏 호흡할 수 있다.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 부르는 것은 하나님의 명칭을 친근감 있게 바꾸자는 것이 아니다. 하나님을 ‘아빠’라 부른다는 것은 우리도 하나님과 더불어 예수님이 누리신 것과 똑같은 관계를 누린다는 뜻이다. 이 관계의 연결자를 성령이라 한다. 예수님이 그 성령을 우리에게 주신다. 이 성령에 힘입어 이제 우리도 성령과 함께 ‘아빠, 아버지’라 부를 수 있게 되었다.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 부르는 것은(롬8:15) 심령의 부르짖음이요 우리 존재의 가장 깊은 곳에서 우러나는 기도다. 그것은 단순히 하나님의 명칭의 문제가 아니라 어디까지나 하나님을 우리 존재의 근원으로 주장한다는 의미다. 이 주장은 갑작스런 깨달음이나 학습된 확신에서 오는 것이 아니다. 그것은 예수의 영이 우리의 영과 더불어 증거하시는 주장이요 사랑의 주장이다.

정서적 삶과 영적 삶은 엄연히 구별되지만 그럼에도 둘은 서로 깊은 영향을 미친다. 감정은 우리의 신앙 여정에 창이 될 때가 많다. 질투를 떨칠 수 없다면, 우리 안에서 ‘아빠’라 부르짖은 성령과의 관계에 문제가 있을 수 있다. 삶의 ‘중심이 잡힌’ 것 같고 깊은 평안이 느껴진다면, 자신이 사랑받는 자라는 깊은 인식의 징표로 볼 수 있다.

마찬가지로 기도생활 - 우리 안에 계시는 성령의 임재에 대한 충실한 반응으로 나오는 - 도 우리의 정서와 기분과 감정을 보여주는 창이 될 수 있다. 하나님의 마음을 향한 기나긴 여정에 감정을 유용하게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의 실마리를 우리는 기도를 통해 얻을 수 있다.

하나님께 대한 우리의 소속의 깊이는 예수님을 통해 계시된다. 성령을 통한 예수님과 하나님의 관계는 완전 개방의 관계다. 예수님의 모든 소유는 아버지의 선물이다. 그분은 그 무엇도 하나님과 떼어 자신의 것으로 주장하시는 일이 절대 없다. 그분은 우리가 아버지로 더불어 자신이 누리신 관계와 동일한 관계를 누리며 자신이 하신 일을 모두 하도록 부름받았다고 말씀하신다.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실 때 그분은 우리가 하나님과 온전하고 친밀한 관계에 들어서게 될 것이라 말씀하셨다.

영적으로 우리는 하나님 안에 있고 주님 안에 있다. 하나님 안이 곧 우리 집이다. 우리의 참 정체는 하나님의 자녀다. 그 시각 - 하나님의 시각 - 으로 우리는 세상을 본다. 하나님이 보시는 대로 세상을 보는 것이 우리의 소명이다. 신학이란 바로 그것을 말한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시각을 벗어나는 모든 착각의 요소를 끊임 없이 진단하며 살아간다.

-헨리 나우웬, 「기도의 삶」(복있는사람) 중에서

## 우리가 부끄러워해야 할 것은

신경림

질척이는 골목의 비린내만이 아니다  
너절한 욕지거리와 싸움질만이 아니다  
우리가 부끄러워해야 할 것은 이 깊은 가난만이 아니다  
좀체 걷히지 않는 어둠만이 아니다  
팔월이 오면 우리는 들떠오지만  
빼꺼리는 사무실 의자에 앉아 아니면 소줏집 통결상에서  
우리와는 상관도 없는 외국의 어느  
김빠진 야구경기에 주먹을 부르쥐고  
미치광이 선교사를 따라 핏대를 올리고  
후진국경제학자의 허풍에 덩달아 흥분하지만  
이것들만이 아니다 우리가 부끄러워해야 할 것은

이 쓸개 빠진 헛웃음만이 아니다  
겁에 질려 아윈 두 주먹만이 아니다  
우리가 부끄러워해야 할 것은  
서로 속이고 속는 난장만이 아니다  
하늘까지 덮은 저 어둠만이 아니다

---

## 헌금 영수기

---

### 십일조 및 월정헌금

고형은 곽새롬 곽수정 김광일 이부용 김명희b김성수 이희숙 김성순 김용길 최영혜  
김은옥 김준호 곽혜자 김지해 김태한 김혜라 나희덕 남명진 김애정 문은지 박병구  
박지혜 박창운 허정운 배강우 백성래 서수진 손규현 오보영 송병찬 양정규 오민용  
우경환 유명호 지성진 유지은 윤정득 이국노 김민화 이미휘 이부곤 이수자 이영하  
이응석 이은경 이현죽 임광호 임선자 장영숙 장현희 정성식 정영례 정윤성 서효진  
정은석 최정신 정택중 조경환 조관행 홍선희 조병무 송양진 조순덕 조영훈 주은경  
최소라 고인성 최옥자 최옥진 정수현 하상애 하현일 한기택 한나영 한봉섭 현 진  
홍춘숙

### 감사헌금

김남홍 선우영 김신영 김의진 김인석 이선화 김정완 서담이 서원이 서한이 김종락  
박영신 노신후 박병구 김인순 박재영 이현정 박지훈 박예셀 박호승 새 날 서담이  
김정완 신기호 안민호 안현호 양희선 유명호 지성진 이삼남 정용구 이상도 이태석  
임종수 전정현 이재삼 정확성 김현숙 진선희 채일석 최원영 허명선 무명4

### 생일감사헌금

박소현

### 녹색꿈헌금

고희도 길나을 김정화 윤서호 임선아 이영하 추광미 (6건)

---

## 예배 및 모임

---

예배	시간	장소	예배	시간	장소
유아부예배	10:50	유아부실	1부예배	09:30	대예배실
유치부예배	10:50	유치부실	2부예배	11:00	대예배실
유초등부예배	10:50	교육관	성서학당	13:30	대예배실
중고등부예배	10:50	중고등부실	수요집회	11:00	교육관
1청년부예배	13:30	유치부실	새벽기도회	06:00	교육관(일·월 쉼)
2청년부예배	13:30	청년회실			

---

## 교회소식

1. 선교회 : 오늘 오후집회는 선교회별 모임입니다.
2. 각 부서 보고 : 다음 주일에 분기 임원회가 있습니다. 각 부서는 활동 보고 및 계획서를 오늘까지 사무실에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3. 교육부회의 : 교육부회의가 오늘 12:30에 세미나실에서 있습니다.
4. 신앙실천 : 한반도의 평화를 위하여 시간을 정해 놓고 기도합니다.

	설교본문	설교	기도	성경봉독	인도
다음주	암 8:11~14	1부 김기석	공동기도	인도자	김재홍
		2부 김기석	이재훈	임당재	이재훈
8월	1부 영접위원	최미자	헌금위원	이선영	
	2부 영접위원	박홍재 정재기	이성범 이유진	김애순 윤영미	
	2부 헌금위원	임주빈 정경례			
식당봉사	오늘	조항미 이은자 안현숙 엄은경	강은주 김지영 신현일 박석희		
	다음주	신영신 김진경 최종미 박정숙 송인선	이혜선 송동준 이재선		
설거지봉사	3남선교회 (오늘) 4남선교회 (다음주)		커피봉사	3여선교회	

※ 교인 등록을 원하시는 분은 안내위원이나 목회자에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우리 교회 주보는 재생용지를 사용하여 만듭니다.